



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화 방향

2023. 2. 28

한국금융연구원

선임연구위원 이병윤

1. '脫홍콩'에도 부진한 글로벌 금융회사 국내 유입

● 최근 '脫홍콩'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유입은 거의 없는 상황임.

- 중국의 지배 강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 및 초고강도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'脫홍콩' 현실화
- 2021년 5월 홍콩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: 응답기업 중 42%가 홍콩을 떠날 계획
- 홍콩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홍콩 내 외국기업 헤드쿼터 및 근무자 수 감소 추세

	2018	2019	2020	2021	2022
헤드쿼터 수	1,530	1,541	1,504	1,457	1,411
헤드쿼터 근무자 수 (만명)	19.6	19.5	17.7	16.1	13.6

자료 : "2022 Annual Survey of Companies in Hong Kong with Parent Companies Located outside Hong Kong",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, 2022.11

- '脫홍콩' 사례:

- 2020년 1월 VF코퍼레이션(노스페이스 등 브랜드 보유) 홍콩사무소 폐쇄
- 2020년 8월 Deutsche Bank가 아시아 지사 CEO를 홍콩대신 싱가포르에 임명
- 뮤추얼펀드 Vanguard Group의 홍콩 오피스 점진적 폐쇄 선언 등
- '脫홍콩' 기업이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. (대부분 싱가포르나 도쿄를 대안으로 고려)
- 다만, 최근의 '脫홍콩' 현상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홍콩의 압도적 위상(배후의 중국경제 +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·제도 등 보유)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음.

1. '脫홍콩'에도 부진한 글로벌 금융회사 국내 유입(계속)

- 우리나라는 2003년 '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' 발표 이후 지난 20년 간 금융중심지 정책 충실히 수행
→ 많은 성과
 -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, 자본시장 고도화, 금융관련 법·제도 감독 등 금융인프라 선진화 등
- 그 결과 서울·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(GFCI)가 2019년 이후 지속 상승
→ 금융중심지로서 위상 강화
 - 서울의 GFCI 순위 : 36위 (2019년 3월) → 11위 (2022년 9월)
※ GFCI(Global Financial Center Index) : Z/Yen 그룹과 중국개발연구소(China Development Institute)가 매년 2회 발표하는 국제금융중심지 지수
- 그럼에도 불구하고 '脫홍콩'하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지는 않음.
- 도대체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왜 잘 안되고,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?

2.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요건과 우리의 한계

(요건 1) 실물경제 규모가 커야 함 (금융회사들의 먹거리 확보)

- 홍콩(중국경제) > 서울 > 싱가포르

(요건 2)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·제도의 정립, 실행

- 홍콩 = 싱가포르 > 서울
- 우리나라 금융관련법은 대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잘 정립되어 있다는 평가임.
- 그러나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음.

① 우리나라 진입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CEO의 법적 리스크에 부담

-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가 금전제재보다는 신분제재, 형사처벌인 경우가 많아 외국계 기업이 부담스러워 함 (금융관련 법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, 중대재해처벌법, 노사관계법 등)

② 경직적 노동시장

-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에 어려움 (최근 논의되는 “노동개혁”과 연계하여 개선 필요)

③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인가?

-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돈 벌어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, 간혹 나타나는 정부의 시장개입 등

2.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요건과 우리의 한계 (계속)

(요건 3) 글로벌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편안한 정주 여건

- 홍콩 =싱가포르 > 서울
- 관련 주요 포인트
 - ① **영어 통용**: 일상생활 및 행정 등에서 공용어 여부
 - ② **교육**: 고소득 외국기업 임직원 자녀를 위한 고급 교육시설
 - ③ **의료**: 영리의료를 통해 비싸더라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
 - ④ **수도권규제**: 생활편의 시설이 많고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서울 등 거주 수요 충족 저해

(기타 어려운 점)

- 기축통화 미보유국으로 낮은 원화 국제경쟁력
 - * 홍콩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환리스크 제거를 위해 통화정책을 포기하면서까지 홍콩달러를 미국달러에 페그시키는 제도 채택
-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

➡ **증·장기적 해결을 목표로 금융당국 뿐 아니라 전 부처 협력 필요!**

3. 제언

-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 필요!

- 앞서 지적한 한계에 대한 혁신적 개선 필요

→ 우리나라 전체에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 → 두바이와 같이 “금융특구”를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 검토

※ 이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전 부처의 협력 필요

- 추가 검토 내용

- 1) 더블린(백오피스 특화)과 같이 특정 금융업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 가능

-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금융분야, 예를 들어 디지털금융 등에 특화한 금융중심지 검토

- 2) 인바운드(inbound) 뿐 아니라 아웃바운드(outbound)도 강조될 필요

-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성공으로 글로벌 금융회사가 되면
 - 헤드쿼터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존재 → 금융중심지 강화
- 해외진출 확대로 우리나라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
 - 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유입 유인 강화

감사합니다

